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1년 6월 15일
제 42 호
• 발행인 : 박찬숙 • 편집장 : 김성길
• 편집위원 : 채영신 이현우 황인우 권혁화 유지현 유영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제7회 황금메아리상, KBS 〈우리말 겨루기〉의 엄지인

올해 황금메아리상의 영예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2021년 6월 8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거행된 '제7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에서, KBS의 엄지인 아나운서가 방송을 잘하는 아나운서로 선정돼 30여 명의 선배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코로나 지침을 준수하며 채영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고故 원종관 선배 추모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박찬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요즘 인사말이 예전 '진지 잡수셨습니까' 에서 '백신 맞으셨습니까' 로 바뀌었으니 세상일은 참 모를 일이 많은 거 같다. 오늘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하지만, 오는 9월엔 이 긴 터널이 끝나고 인원 제한 없이 맘껏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찬숙 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

이어 지난 3월 회장 이취임식 동영상 시청과 역대 수상자 소개, 시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선정위원회 이후재 부회장은 "부회장단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계진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발표한다. 남녀 한 명씩 추천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위원들이 1인 2표씩 투표한 뒤 최다 득표순으로 명단을 작성, 1명을 최종 선정했다. 결과,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는 엄지인 아나운서가 선정됐다"라고 발표했다. 수상자는 상패와 부상으로 회장이 준비한 '묘운석 목걸이 · 팔찌', 동아제약이 제공하는 '건강용품세트' 를 받았고, 김보민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수상 소감에서 "선배님들이 직접 주시는 상이라 어깨가 더 무겁다. 입사한 지 햇수로 15년, '어떤 길을 가야하나' 고민이 많은 때 수상 소식을 들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우겸 고문은 축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하다니 대단하다. 수상을 축하한다. 방송 보며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전영우 고문과 아나운서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축하 메시지와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며 시상식을 마쳤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로 인해 정례 모임처럼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후배 사랑, 선배 존경' 의 전통을 이어가며 축하와 격려의 덕담을 나누었다.

수상자 프로필과 소감 2면

회장단, 클럽 운영의 발전적 변화 모색

'편집간담회' 4월 2일 개최

아나운서클럽회보 발간 10주년을 맞아 박찬숙 회장이 발전적 변화를 위해 '편집간담회' 를 마련했다.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일 퍼시픽호텔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신임 편집위원인 권혁화(전 MBC), 유영미(SBS) 위원의 소개 및 향후 편집 방향과 기사 발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박찬숙 회장은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도 공유하는 오픈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며 회장으로서 바람을 얘기했고, 위원들은 클럽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읽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길 편집장은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5월 7일, '줌(Zoom)' 을 활용한 기획 회의를 열고 아나운서 클럽회보의 '편집 매뉴얼' 을 확정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실시한 비대면 화상 회의였다.

'발전위원회' 는 4월 7일에 열려

한편, 클럽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발전위원회' 도 4월 7일 퍼시픽호텔 식당에서 열렸다. 박찬숙 회장, 채영신 사무총장,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 등 집행부와 KBS 김동우 아나운서가 참석해 신규 회원 증대 방안과 황금메아리상 후보에 스포츠캐스터도 포함시키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나한과는 〈〈영남채약록〉〉에서 약으로 처음 기술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약 300년이 넘도록 '신선과' 라고 불리는
우수한 효능의 열매입니다.

신의 선물 나한과 茶

지금 검색해서 직접 확인하세요!
나한과 차 검색
문의전화 070-7777-8146

이런 분들 나한과차를 마셔보세요

· 칼칼한 목, 따가운 목, 마른 목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
· 미세먼지로 기관지를 보호하고 싶으신 분
· 면역력이 약해 걱정이신 분
·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환절기가 되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
· 혈당 걱정없이 단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
· 필수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

제7회 황금메아리상 수상 소감과 축하 메시지

엄지인 아나운서 〈KBS1TV, 우리말 겨루기〉 매주 월 19:40~20:30

〈우리말 겨루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온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리말 퀴즈쇼이다. 2010년부터 11년째 진행 중인 엄지인 아나운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진행을 통해 바른 언어 사용과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재미있게 알림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KBS 3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동안 〈KBS 9시 스포츠뉴스〉 〈아침마당〉 〈생로병사의 비밀〉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MC로 활약했다. 방송 진행 경험을 살려 『안녕, 나의 한글 맞춤법』을 출간해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선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수상자 엄지인

11년 전 〈우리말 겨루기〉 무대에 오를 때의 떨림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아나운서였기에 무대의 무거움을 모르고 겁 없이 덤볐습니다.

퀴즈쇼인 만큼 출연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며 함께 호흡함은 물론, 진행자 말 한마디의 중요함과 우리말을 적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은 모르고 패기로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간의 담금질은 제 인생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말 겨루기〉는 저를 '아나운서 엄지인'으로 설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15년이 지나며 아나운서의 길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선배님들께서 큰 상을 주시니 더욱 힘을 내서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봄날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일반 출연자들의 깊은 속내까지 이끌어 내는 진행...믿음이 갑니다."

– KBS 제작 CP 방성용

밝은 미소와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엄지인 아나운서가 큰 상을 받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10년이 넘도록 KBS 대표 교양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를 한결같이 지킨 엄지인 아나운서의 훌륭한 진행 실력은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방송 중 유일한 한글 퀴즈쇼 프로그램의 전문 MC로서 일반인 출연자들의 깊은 속내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우리말 겨루기〉의 한 축인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진행 실력에 언제나 믿음이 갑니다. 퀴즈쇼에서 필요한 정확하고 명석한 판단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스태프들과도 즐겁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엄지인 아나운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이어진 '후배사랑, 선배존경'의 전통

박찬숙 회장

엄지인 아나운서

황우겸 고문

전영우 고문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성수 김병찬 권혁화 성연미 차기정 황인우 이현우 김성길 전찬희 이형균 유지현 이장춘 정연호 김상준 이혜옥 이후재 어호선 전옥수 김보민 송현식 김규홍 정흥숙 조길자 전영우 박찬숙 황우겸 엄지인 문무일 박민정 양진수 채영신

| 알림 |

고맙습니다

연회비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금순)

변순복(1/14) 안종순 신영일 전응덕 이지연 박현선 김창옥 원창호 이규항 이현우 조문자 윤영중 김관동 박종홍 유영미

발전기금

전응덕 (전 TBC) 10만 원

이지연 (전 CBS) 50만 원

이후재 (전 KBS) 30만 원

광고 유치

박찬숙 회장
효성그룹,
내추럴렐릭스 뮤지엄(주)
550만원

축하합니다

임종훈 (전남CBS)	5월 21일 득남
김영자 (전 KBS)	5월 2일 혼사 (아들 최재혁 군)
차예린 (MBC)	5월 2일 혼인
안희재 (전 KBS)	4월 24일 혼사 (차남 문호준 군)
김솔희 (KBS)	4월 3일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원종관 (전 KBS)	5월 20일 본인상
유영미 (SBS)	5월 15일 부친상
이재후 (KBS)	5월 14일 모친상
이재성 (KBS)	4월 26일 조모상
배창복 (KBS)	4월 25일 빙부상
정혜실 (전 KBS)	4월 17일 시모상
이병열 (전 KBS)	4월 10일 본인상

연회비와 발전기금은 클럽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Zoom-in 박찬숙 회장

"코로나19 상황이라 아쉽지만, '같이' '가치' 있게 활동해봅시다!"

5월 14일, 지리산 자락 남도 여행을 마치고 귀경한 박찬숙 회장을 자택 아파트 단지 북카페에서 만났다. 공동 카톡방을 통해 간간이 여행지 사진과 소감을 접하며 70대 중반임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나날이 아름다운' 비결이 궁금하던 차였다. 그 답은 "곰곰이 생각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 없이, 생각 없이 산다." 바로 그거였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래 준비하며 뜸 들이기보다 대단한 배짱과 열정으로 돌파하는 힘!

글/ 황인우 편집위원

1. 회장으로서 포부와 구상

퇴직자는 물론 현역과 프리랜서까지 저변을 넓혀 여럿이 함께 가자. '안 나오다 나오기가 쑥스럽고 연회비도 부담되겠지만, 모임에 나와 클럽 활동을 해보십사' 권한다. 그리고 우리 만남이 반가움으로 끝나기보다 친목을 넘어 의미 있는 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회원의 활동도 후원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

아나운서란 '말과 글을 통해 알리는 사람'이다. 아나운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말과 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구심점이 되어 그 역할을 하고, 문호를 넓혀 외부 기고문도 싣는 등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매체에서 우리 아나운서클럽회보 기사를 인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회장 취임 후 클럽회보 배송 주소록에 300여 국회의원실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아나운서클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으니 그것부터 해결해보자 싶었는데, 탐문 과정에서 "요즘은 사무실이 없어지는 시대 아니냐?"란 말을 듣기도 했다. 열린 사고로 임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이 못내 아쉽다.

2. 50년 방송 이야기

1968년 문공부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시작해 대담,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다 1995년 프리랜서를 선언했고 2017년까지 50년간 마이크와 함께했다.

1971년 KBS 남산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1973년 결혼하며 퇴사했다가 바바라 월터스 같은 여성 앵커를 필요로 하는 시대의 요청으로 1976년 보도국 방송위원으로 복직, KBS TV 〈9시 뉴스〉 첫 여성 앵커를 맡았으나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해직되었다. 그 후 1987년 아침 〈945뉴스〉 앵커로 복귀해 1989년에 정식으로 복직되었다.

1994년 7월 KBS 라디오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를 맡아 오프닝멘트에서 "시원한 뉴스, 보이는 방송, 만져지는 뉴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1998년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한 날 오프닝멘트는 "야구는 박찬호, 골프는 박세리, 방송은 박찬숙입니다!"였다.

2000년 봄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부문 특별상에 이어 그해 가을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을 수상했고, 2001년엔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특집 '지금은 지방시대 그 현안을 진단한다'가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아나운서로서 프로그램을 명쾌하게 진행하고자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대답 속에 질문이 숨어 있다'와 '균형감'이었다.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살려야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

3. 정치 사회 활동

'일주일에 방송 하나만 해도 방송인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마이크를 내려놓게 되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제안을 받아들였다. 2004년 17대 국회에 진출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네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강원도 지방을 시찰 할 때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공동 대표를 맡아 공저 『유럽의 도시 공공 디자인을 입다』『일본 경제 공공 디자인으로 일어서다』를 펴내 국회에서 발간한 책 중 최고라는 평을 들었고, 2007년 코리아 베스트어워드 디자인공로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2018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까지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편 1999년 8월 터키에서 20세기 최대의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터키에 7만 달러의 구호금을 보낸 적이 있다. 아무리 IMF 체제라 해도 '형제의 나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싶었다. 이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 한양대 이희수 교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터키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하고, 다음날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도 뜻을 함께해 모금운동을 펼치니 23억 원의 거금이 모아졌다. 현지를 방문해 성금 100만 달러를 전달할 때는 참으로 뿌듯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했다며 감사패도 받았다.

이후 한터친선협회가 만들어져 초대 이시형 박사에 이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2대 회장을 지냈다.

4. 문화 예술 활동

해직 후 재취업도 제한되어 옷가게도 운영하며 문화센터에서 소설가 이호철 선생으로부터 소설 작법을 배웠다. 한번은 이 선생이 내 습작을 보고 "능청스럽게 잘 썼다."라며 공모전에 내라고 권유해 1992년 소설집 『파꽃과 꼬리』로 동서문학상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다. 1995년 칼럼집 『세상을 연다 사람들을 연다』, 1998년 소설집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하다』를 출간했다. 그러다 다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소설을 계속 쓸 수 없었으니 소설가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은 사진을 찍는다.

5월을 향하는 빗속에서 푸르름은 더 깊어지네 – 박찬숙 회장의 일상 사진 중

사진작가인 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사진을 찍혀봤으니 사진을 잘 찍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카메라를 사 렌즈를 통해 사물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오던 때라 물에 관한 사진을 찍으며 5개월 만인 2011년 11월 '시선'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다. '4계절도 안 찍어보고 전시회를 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 생각은 달랐다. 디지털카메라이니 광학의 힘을 빌려 전시하면 되지 않는가? 서툴더라도 나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 후 2014년 10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평처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며 발견한 놀라운 세계'를 담아 '물결 숨결' 전시회를 열었고, 2015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물포럼에서도 선보이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카메라 렌즈와 일상을 함께한다.

회 | 원 | 동 | 정

문무일(전 MBC)

신뢰 회복 운동... 트러스트 포럼 개최

대한민국 신뢰 문화 창출을 위한 '제 3회 트러스트포럼 (The Trust Forum)'을 5월 22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했다. 트러스트포럼은 문무일 대표가 시작한 '신뢰회복운동'이 발전한 포럼이다. 이날 포럼에는 관심있는 정계 인사와 심훈 선생의 손자 심천보 작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클럽에서는 황우겸 고문, 박찬숙 회장, 김규홍 책임운영위원, 정흥숙, 차기정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선영(전 MBC)

(사)물망초 정기총회, 태영호 의원 특강

5월 12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제9기 (사)물망초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한미관계와 북한 인권'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으며, 60여 년간 북한 억류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생환한 이○삼(100세)씨와 김○태(90세)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황우겸 고문과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방남순(전 MBC)

6월 11일, 개최된 2021년도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지현(전 SBS) 편집위원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팬데믹 시대 카톨릭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원격 국제회의 '시그니스 아시아(SIGNIS Asia) TV 컨퍼런스'의 영어 MC로 활약했다. 유지현 편집위원은 시그니스 아시아의 Screening Committee 이사로 선임되었다.

조수빈(전 KBS)

4월 8일, 선친이 입원했던 분당 차병원 암센터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수호천사기금으로 적립되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간암 환자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성경환(전 MBC)

지난 2018년 4월부터 재임 중인 한국정책방송(KTV 국민방송) 원장의 임기가 연장돼 2022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채영신(전 KBS) 사무총장

(사)KBS사우회 발전을 위한 수익창출 TF위원으로 지난 4월 8일 선임되었다.

채영신 사무총장은 현재 KBS사우회 이사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황인우(전 KBS) 편집위원

4월 29일과 5월 6일 경기도 포천 차의과학대 미래관에서 '글과 말 다루기 – 낭독의 발견'이란 제목으로 2차례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강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인 신은경 운영위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윤지영(전 SBS)

본인이 작사하고 노래한 곡 '안녕! Adagio'를 4월 15일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사랑과 고뇌에 대한 갈등을 노래한 이 곡은 클래식 창법에 가요적인 느낌이 가미된 한국적인 크로스오버 곡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윤지영 회원은 국회방송 〈인터뷰릴레이 칭찬〉, TBN 경인교통방송 〈윤지영의 주말, 달리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금희(전 KBS)

5월 26일, 가수 성시경, 이석훈 등과 함께 MBC TV 〈라디오스타〉 '너의 목소리가 끌려' 특집 방송에 출연해 예능감을 과시했다.

도경완(전 KBS)

4월 27일 유튜브 〈도장TV〉를 개설, 1달 만에 구독자 30만을 돌파했다.

도 회원은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전속으로 SBS FiL·SBS MTV 〈더 트롯쇼〉와 TV조선 〈내 딸 하자〉 MC를 맡고 있다.

김일중(전 SBS)·이지애(전 KBS)

4월 2일 (금) 오전 8시 40분 첫 방송된 EBS 〈부모〉의 MC를 맡았다. 2003년 〈60분 부모〉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여러 육아 고민상담소'를 신설, 꼭 해결하고 싶은 육아 고민의 처방전을 전한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 원종관(전KBS), 향년 86세로 5월 20일 별세

1961년 MBC 개국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1964년부터 TBC로 옮겨 아나운서실장을 역임했다. 1980년 방송통폐합으로 KBS로 옮긴 뒤, 전설적인 스포츠캐스터로 활약하다 1995년 정년퇴직했다.

편집자 주: 고인은 담도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5월 20일 별세해 경기도 김포 선영에 모셔졌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타계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직계 가족들만 모여 장례를 치렀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후배들의 추모의 마음을 SNS에서 접하고 그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아나운서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선배님, 그 먼 길을 먼저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후배들은 허무함과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게 편찮으셨는데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 무심한 후배들은 그저 죄스러울 뿐입니다.

깔끔한 성품으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 했기에 가시는 순간까지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군요. 당신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지만 후배들에게는 늘 인자하시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선배님, 후배들은 그 훌륭한 인품에 머리 숙였었지요. 은발에 어울리는 멋진 패션에 위트 있는 멘트로 자긍심을 심어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88서울 올림픽 개회식 때 들려오던 권위 있는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선배님과의 사연을 각자 가슴에 안고 길이길이 기리겠습니다. 삼가 뒤늦게나마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평안한 곳에서 편안히 쉬시옵소서.

고 이병열(전 KBS), 향년 86세로 4월 10일 별세

1959년 남산 중앙방송국 시절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실과 심의실, 방송연수원 등에서 근무한 후 1994년에 퇴사했다.

성선경 회원이 남편 이병열님을 보내며...

이병열 씨와 이별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가운데 허둥대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가루로 맞이하던 때가 문득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정 인간의 존재가 하찮음을 느꼈으며, 욕심 불만 불평으로 투덜대며 살아온 저의 지난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래 글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쓴 기도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평탄한 생을 사신 복이 많은 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농장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어려움과 미움 다 잊고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당신 곁을 지킬 때, 손을 꼭 잡고 반가워하시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간병인이 씻겨줄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깍듯이 해주셔서 참 교양 있는 할아버지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잘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병고에 시달린 7개월간의 긴 고통을 면하고 당신 홀로 가시니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당신하고 살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 한다고 너무 벌려놓아 당신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드리고 걱정도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당신을 육신으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고통 없는 평안을 같이 누릴 것입니다. 편안히 가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윤한(전 KBS), 김주혜(전 KBS)

"치악산 기슭에서 소일거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허!"
– 김윤한

"여자 '김삿갓'이 원주에 정착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호호!"
– 김주혜

목멱회(남산 중앙방송국 시절 아나운서 모임) 선후배가 치악산 기슭에서 오랜만에 만났다. 강원도 원주에서 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다 '치악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윤한 회원(72)이 선배 김주혜 회장(81)을 조심스럽게 초대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회보 편집장도 함께 했다.

1970년 KBS에 입사해 38년간 스포츠 중계 캐스터로 명성을 날렸던 김윤한 회원과 1963년부터 35년간, KBS 본사와 지역국에서 마이크를 연인 삼아 열정을 불태웠던 김주혜 회원의 현재진행형 구술 자서전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두 분, 목소리가 여전히 힘이 있고 낭랑하십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주혜, 이하 **주**): 그저 바쁘게 살면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웃고 말하다 보니까 특별한 운동 안 해도 체력이 유지되는 거 같네요. 물론 채식 위주의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한, 이하 **윤**): 얼마 전까지 조기 축구와 필드하키를 즐겼습니다. 끼니는 걸러도 운동은 거르지 않을 정도로요. 요즘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운동합니다. 산속의 집에서 사니까 새소리와 닭 울음소리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데, 우선 침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아침 산책 겸 등산을 하는 수준입니다. 적당한 운동과 소일거리 덕에 아직은 건강한 편입니다.

– 규모가 상당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시나요?

윤: 부지가 한 만 평 정도 되니까 큰 편이지요. 도와주는 직원이 있지만 저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면 골프연습장 둘러보고 관리도 직접 합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2007년에 퇴직하고 바로 시작했을 때는 할일이 무척 많았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40대 때부터 경기도 일산을 비롯해 전국을 다니면서 부지를 찾다가 정년 6년 정도 앞두고 여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각종 사회 복지 시설과 기관, 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주로 취약 계층이나 보호 대상자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나운서로서 경험한 것을 젊은이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살리고 싶어서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한 14년간 강의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제 고향 강원도 영월 초등학교에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준 일입니다.

주: 저는 주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능 기부와 봉사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요. 공지사항이 있을 때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도 잡고요. 마이크를 놓은 지가 어느덧 24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마이크 앞에 서면 행복해집니다. 행사가 없을 때도 매일 복지관에 출근해(?) 치매 어르신 도우미와 센터 미화원 봉사, 독거노인 상담 전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인 거 같아요. 취미로 시작한 서예와 하모니카, 우쿠렐레, 탁구도 즐기다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 원주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윤: 태어난 곳은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입니다. 경찰이었던 아버님이 6·25 전쟁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세 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화전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동생과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화전민의 아들로 불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주로 유학 와서 원주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형모 전 KBS 부사장과 아나운서클럽 이계진 수석부회장, 김성응 회원이 고교 선배지요. 1999년에 원주방송국장으로 오게 되면서 인생 2막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주: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처음 원주와 인연을 맺은 것이 지난 1988년인가, 지역 순환 근무를 했던 시기에 원주방송국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년 후를 이곳에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서울과 가깝고 강원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 좋았나 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여자 김삿갓'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2004년에 정착했네요. 호호호. 벌써 17년 이상 살고 있으니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되었군요.

–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게 뿌듯하시지요?

주: 그럼요. 고등학교 때 책 읽기를 자주 하다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들으시고 '아나운서를 하면 되겠다' 고 말씀하신 게 계기가 돼서 대학도 국문과를 선택했고, 대학 방송을 거쳐서 운 좋게 아나운서가 됐지요. 그 경험이 요즘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나 몸이 불편한 분들 상황에 맞게 또렷한 말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윤: 저는 현역 시절에 '내가 아나운서라는 게 꿈만 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38년간의 아나운서 생활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학창 시절의 필드하키, 축구, 유도, 태권도 운동 경험과 대학 때 장난삼아 했던 축구 중계가 계기가 돼서 스포츠 캐스터로 방향을 정했지만, 제가 꾸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선후배 동료들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양보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이준호, 김기훈이 우승할 때 중계했던 테이프가 남산 타임캡슐에 보관된 일이나 9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 황영조의 금메달 획득 순간을 중계한 일 등은 아나운서로서 긍지를 갖게 한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선후배들이 이 곳을 방문해서 아나운서 시절의 '라떼는'을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 덧붙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 여든 살이 되기 전에 시집을 하나 내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새 여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필 같은 시, 시 같은 수필에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두뇌가 허락하는 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윤: 저는 현역 후배들에게 조심스런 조언을 한마디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키고자 하는 소명의식 만큼은 꼭 간직하고 방송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아나운서클럽 원주 소모임'은 '하하', '호호'의 아재 줌마 수다 속에 서로의 근황과 마이크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저녁 무렵까지 이어졌다. 인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약사인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원주에서 조그만 약국을 운영하는 사모님과 제2의 신혼생활(?)을 하는 김윤한 선배,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봉사와 배움을 계속하겠다는 김주혜 선배. 부러움과 배움과 즐거움의 시간이었다.

글/ 김성길 편집장

방 | 송 | 가 | 소 | 식

KBS

KBS 아나운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낭독 자료 제작

KBS 아나운서실이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낭독자료를 제작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어연구부(부장 윤인구) 주도로 실시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발화와 언어 습관을 목표로 진행됐다. 38명의 아나운서가 1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서 자료 낭독 14명의 아나운서들이 원고 및 녹음 파일 감수에 참여하는 등 총 54명의 아나운서가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 알리기에 앞장섰다. 의미 있는 공익적 프로젝트로,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김솔희 아나운서, 〈질문하는 기자들Q〉 진행

김솔희 아나운서(35기)가 지난 4월 18일 첫선을 보인 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Q〉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질문하는 기자들Q〉는 〈저널리즘토크쇼J〉가 시즌2로 막을 내린 뒤, '미디어의 본질'과 '공영방송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편견 없는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새 프로그램이다.

정세진 아나운서, 〈심야토론〉 진행

정세진 아나운서(24기)가 6월 5일부터 KBS 〈심야토론〉의 진행자로 나섰다.

그동안 〈9시 뉴스〉를 비롯해, 〈저널리즘 토크쇼J〉와 각종 선거방송 등에서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줬던 정세진 아나운서가 또 한번 객관적이고 명석한 진행자로 품격 높은 시사 프로그램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SBS

최영주 아나운서, 〈희망TV SBS〉 진행

최영주 아나운서가 5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된 〈희망TV SBS〉에 MC로 활약했다.

이번 〈희망TV SBS〉에는 이승철, 김현철을 비롯한 가수들이 출연을 했고 박광범, 김소원, 유혜영, 정석문 아나운서가 더빙으로 힘을 보탰다.

이윤아 아나운서, 〈퀴즈몬〉 MC 발탁

이윤아 아나운서가 SBS의 새로운 서바이벌 가족퀴즈 프로그램 〈퀴즈몬〉 MC로 발탁됐다. 여기에 하하와 채연이 합세해 진행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도전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와 부모 그리고 시청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BC

MBC 뉴스 앵커 교체

MBC 아나운서들이 뉴스 개편을 맞아 새로운 앵커로 투입되었다. 사내 오디션을 통해 이휘준, 정다희 아나운서가 뉴스 투데이의 앵커로 낙점되었고 〈930 뉴스〉는 김준상 아나운서가, 〈정오뉴스〉는 김미정 아나운서가 새 앵커로 자리를 잡았다.

전종환 아나운서, 에세이 『다만 잘 지는 법도 있다는 걸』 발간

〈생방송 오늘 아침〉과 〈PD 수첩〉을 진행 중인 전종환 아나운서가 『다만 잘 지는 법도 있다는 걸』을 발간했다. 전종환 아나운서는 "부족하지만 아나운서와 기자 경험을 글로 풀어봤습니다. 아나운서 모두가 겪었을 초짜 시절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CBS

신지혜 아나운서, 〈시네마콘서트〉 진행

신지혜 아나운서가 지난 5월 18일과 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CBS 시네마콘서트〉의 사회를 맡았다. '영화 속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거장들'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시네마콘서트〉는 최영선의 지휘와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속에서 들었던 귀에 익은 명곡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첫 날 공연은 네이버TV '칸타빌레' 채널을 통해 중계되면서 콘서트 당일에만 14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 공연에 목말랐던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봉규 아나운서, 〈이봉규의 어떤가요〉 신곡 발표

CBS 라디오 프로그램 〈이봉규의 어떤가요〉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어봉저스〉에서 세 번째 신곡 '안알랴줌'과 후속곡 '모르는 이야기'를 발표했다. 대학가요제 출신인 그는 지금까지 '발라드봉' '봉딱' '쎄씨봉규' 세 명의 부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다.

OBS

김준호 · 유진영 아나운서, 〈2021 바다동요대회〉 진행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과 OBS 경인TV가 공동 주관하며 해양환경공단이 후원한 '2021 바다동요대회'가 5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웨이브 파크에서 개최됐다. 〈바다동요대회〉는 해양문화 저변을 넓히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본선에 총 14개팀(가창 3팀, 창작 11팀)이 참가했다.

우리말 순화어, 함께 알아가요!

'섬네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양각색의 섬네일'이 우리의 시선을 끌며 클릭을 유도합니다. 영어로 '엄지손톱'을 가리키는 '섬네일(thumbnail)'은 인터넷에서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섬네일'은 '마중그림'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순화어 '마중그림'을 누르면 링크를 걸어 둔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마중그림을 만들어야 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페이백'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페이백 이벤트가 진행 중'인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페이백(pay back)'이라 합니다. '페이백'은 '보상 환급'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항공 운임 일부를 보상 환급해 드립니다.", "숨어 있는 '보상 환급' 서비스를 찾아 똑똑하게 소비하세요."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외. 글/ 이현우 편집위원

jtbc

아나운서팀, 개편 맞아 대대적인 자리 이동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되었다.

송민교 아나운서가 5월 31일부터 매주 월~목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새롭게 선을 보인 아침 정보 프로그램 〈다채로운 아침〉의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았다. 평일 오후 4시 30분으로 시간대를 옮긴 〈정치부회의〉에는 백다혜 아나운서가 투입됐고, 새로운 대담 프로그램 〈썰전라이브〉에서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활약한다. 〈정치부회의〉에서 '현장반장'을 지낸 강 아나운서와 박성태, 이성대, 두 기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촌철살인 정치 토크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끝으로 〈사건반장〉에서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은 아나운서는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BBS

올해의 슬로건, '행복한 나를 찾는 길, BBS불교방송' 발표

5월 1일 개국기념일 맞아, 올해 슬로건 '행복한 나를 찾는 길, BBS 불교방송'을 발표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방송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아나운서팀,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에서 활약

특집 생방송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에서 장수연 아나운서가 연등 행렬의 중계를, 정준영 아나운서와 김명석 아나운서가 각각 라디오와 TV스튜디오 진행을 맡았다.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을 이선희 아나운서가 중계했고, BBS법당 봉축 점등식 중계는 김민영 아나운서가 담당했다.

febc

2021년 봄 프로그램 개편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에서 지난 4월 19일 월요일, 정기 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내 양질의 음악 선곡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청취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다.

TBS

김보빈 아나운서, 〈시민영상 특이점〉 새 MC 발탁

김보빈 아나운서가 개그맨 이승윤과 함께 TBS TV 〈시민영상 특이점〉의 새 MC로 발탁됐다. 신개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민영상 특이점〉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시즌3에서는 두 MC가 직접 시민 제작자를 만나는 '시민 인터뷰'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시민영상 특이점〉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김진현 아나운서, 〈더룸〉 MC 합류

TBS TV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더룸〉이 월~금 주5일로 확대 편성되면서 김진현 아나운서가 새 MC로 합류했다. 김진현 아나운서는 금요일 더룸 2부 〈시사불금 랭킹쇼〉에서 한 주간 이슈가 된 뉴스와 인물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새롭게 단장한 TBS TV 〈더룸〉은 월~금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cpbc

김지현 · 김슬애 아나운서, 〈오늘도 감사데이〉 진행

cpbc 평화방송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오늘도 감사데이〉 행사를 기획했다. 5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TV·라디오·유튜브 동시 생방송 된 행사에는 워너원 김재환, 가수 양준일, 뮤지컬 배우 최정원, 팝페라테너 임형주, 가톨릭평화방송 방송주간 황중호 신부 등이 출연해 후원자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민 아나운서, 〈군종의 시간〉 제작 · 진행

국방부와 가톨릭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군종의 시간〉을 이정민 아나운서가 제작·진행을 맡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군종의 시간〉은 코로나 시기 군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코너들로 꾸며져 있다.

우리말 다듬기
힘내라, 한국어! ⑫

말의 음악성을 살려주는 장단음과 악센트

–우리말 장단음은 악센트에 영향을 준다–

김상준 (전 KBS)
언론학 박사

한국어를 아름답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단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방송언어에서도 장단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어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한 교수들까지도 장단음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규항 전 KBS 아나운서실장은 우리말의 품위를 논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기도 한다.

"춘향전에서 본받아야 할 말은 이 도령과 춘향이의 말이고, 방자와 향단이의 말은 그와 반대되는 말이다. 이 도령과 춘향이의 말은 '말씨'라 할 수 있고, 방자와 향단이의 말은 '말투'라고 해야 한다."

이 도령과 춘향이의 '말씨'는 점잖은 사대부 집안의 말이고, 방자와 향단이는 시정잡인(市井雜人)들의 '말투'였을 것이다.

장단음을 무시하고 말을 하는 것은 노래에서 박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장단음을 무시하면 모든 음절이 짧은소리가 되면서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staccato) 형태가 된다. 우리말에서 장단음을 잘 살리면 '말:'(言語)과 '말'(馬)에서와 같이 뜻을 구분해주는 변별적 기능을 하면서 노래에서의 레가토(legato)로 들리게 한다.

장음과 단음의 비례는 한국어가 2.5대 1, 영어가 1.8대 1, 일본어는 이보다 훨씬 길어서 3대 1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장단음은 악센트와 리듬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국어의 악센트(accent) 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음절 왼쪽에 악센트 표시 ' ′ '를 했다.

첫째, 첫음절의 장음에는 악센트가 오는데, 예를 들면 [′이:씨], [′정:씨], [′고:목](古木)이다.

이씨(李氏)의 경우 '이 선생'을 장음으로 하면 [′이:선생]이 되는데, 단음으로 하면 악센트가 둘째 음절인 '선'으로 넘어가 [이 ′선생]이 된다. 그래서 '이 선생, 저 선생, 그 선생'과 같은 말로 변한다.

'고목'을 길게 하면 오래된 나무인 [′고:목], 짧게 하면 죽은 나무인 [고 ′목](枯木)이 된다. 합성어를 만들면 [′고:몽나무]와 [고 ′몽나무]로 나뉜다.

둘째, 받침이 있는 무거운 음절에 악센트가 오는데, [′엄마], [′정치]와 같은 말이다.

셋째, 첫음절이 가벼우면 [어 ′머니], [자 ′동차]처럼 둘째 음절로 악센트가 이동한다. 사투리는 [′어머니], [′자동차]처럼 첫음절에 악센트가 올 수 있다.

넷째, 경음과 격음 앞에 악센트가 온다. 예를 들면, [′어깨], [′아빠], [′토끼], 볶음[′보끔], 진창길[진 ′창낄] 등이다.

다섯째, 첫음절이 무거운 음절이지만 둘째 음절이 모음으로 연음이 되면 악센트도 이동한다. 국어[구 ′거], 영어[여 ′ㅇㅓ]와 같다.

이때 '영어'는 받침 이응이 연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옛이응(ㆁ)이 고어로 처리가 되면서 벌어진 한국어의 음성학적인 문제점이다

저시력 어린이에게 맞춤안경을 제공하는 [효성 베트남 의료봉사 미소원정대]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부터
세상 곳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를 위해
효성의 손과 마음을 나눕니다

더 많은 희망과 더 큰 웃음이 넘치는
더 좋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HYOSUNG

미소원정대 해외 의료 봉사활동

영락애니아의 집 봉사활동

문화유산 보호활동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현충원 1사 1묘역 봉사활동